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며 이란 원정길에 오르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 깬다”

허정무 號 두바이행...시리아·바레인과 실전 테스트 6일 테헤란 입성...고지 적응 여부가 승부 최대 관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 원정길에 올랐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떠났다. 허정무호가 다음 달 11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 승리를 향한 진군을 시작한 것이다. 골키퍼 이은재(수원)와 공격수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미드필더 이청용, 기성용(이상 서울), 율해부터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이정수(교토) 등 태극전사 19명은 조종연 신임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격려를 받으며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한 박주영(AS모나코), 이영표(도르트문트),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 등 유럽과 다섯 명은 두바이와 테헤란에서 각각 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표팀은 일단 UAE 두바이에서 탐금질 하면서 다음 달 1일 시리아, 4일 바레인과 평가전을 치르고 6일 오전 결전의 땅인 테헤란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번 이란전의 최대 관건은 태극전사들의 고지 적응 여부. 테헤란은 평균 고도가 1,200m에 달하고 경기장은 해발 1,273m에 위치해 한국선수들에게는 대기압과 기온이 낮은 고원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않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송홍선 박사는 “테헤란에서 90분 풀타임을 뛰려면 평지인 서

울(해발 51m)에서는 140분 이상 뛰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2승1무(승점 7)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란이 1승2무(승점 5)로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11월1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에서 2-0 완승을 했던 한국이 다시 적지에서 이란까지 꺾으면 남아공으로 가는 길은 확 트인다. 하지만, 이란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2위인 한국은 이란(FIFA 랭킹 46위)과 역대 대표팀 간 대결에서 8승5무8패로 호각세였다. 특히 이란 원정에서는 1무2패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허 감독은 출국 직전 인터뷰에서도 “선수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준비했다. 이란은 힘 있고 기술 좋고 짜임새가 있는 팀이다. 쉬운 경기는 아니지만 차분한 운영으로 찬스를 만들어가겠다. 선수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극호의 각오처럼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축구협 새 집행부 구성...황선홍·홍명보 이사 선임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수장에 오른 조종연 회장 체제를 지탱할 집행부 임원진을 구성했다. 축구협회는 29일 전무이사에 김진국 협회 기획실장을 선임하고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과 홍명보 전 올림픽대표팀 코치를 이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 김호준 전 전무이사 후임에는 김진국 기획실장이 낙점을 받았다. 김진국 신임 전무는 1970년대 축구대표팀에서 165cm의 단신임에도 장신(190cm) 공격수 김재한 협회 부회장과 명품비를 이뤘던 남편 몸놀림과 정교한 어시스트로 각광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협회 이사진에는 ‘젊은 피’ 황선홍과 홍명보가 새롭게 가세했다. 한편 협회는 다음 달 5일 오전 11시 축구



〈황선홍 이사〉 〈홍명보 이사〉

전남 화순초 첫 금

동계체전 크로스컨트리 여초 6km 계주

전남 화순초등학교가 동계체전 사전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는 29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계주에서 이원지·이유진·윤민지 양의 선전에 힘입어 22분04초7 기록으로 강원선발(22분09초8)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화순초는 동계체전 6km 계주 2년 연속 은메달의 한을 풀었다. 이날 열린 남자일반부 40km 계주에선 전

남스키협회가 2시간28분29초6을 기록,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서 1시간06분46초9를 마크한 동신대와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화순초 이원지는 28일 열린 여초부 클래식 3km에서 11분16초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유진(11분38초), 윤민지(11분45초4)가 뒤를 이어 3·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남선수단은 사전경기에서 금 1개, 은 1개, 동 3개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은 동계체전 사전경기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9일 강원도 용평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초초등부 6km계주서 우승한 화순초 선수단. 왼쪽부터 김경중 교장, 이원지, 윤민지, 이유진 선수 그리고 맨 오른쪽 이재양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초등학교에도 생활체육 열풍

광주시생체協, 3~12월까지 24개교에 스포츠 강사 배치

광주시 초등학교에도 생활체육 바람이 불어온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는 스포츠 강사 24명을 월곡초·수창초 등 24개교에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체육수업 보조자로 배치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 배치된 강사들은 교사들과 함께 체육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지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체협은 교원, 생활체육·경기 지도자 등의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채용해 60시간의 사전연수교육을 시킨 후 학교에 배정할 방침이다. 생체협은 이러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실내수업에 지친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체협은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어린이체능교실·청소년체력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창준 광주시생체협 회장은 “스포츠 강사를 통해 학교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학생들이 미래 체육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이클聯 구자열 회장 선임

구자열(사진) LS전선 회장이 앞으로 4년간 사이클 연맹을 이끌게 됐다.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추대위원회는 29일 구 회장에게 연맹 회장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21일 대의원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대의원으로 회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연맹 회장을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구 회장은 오는 3월 연맹 회장에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블로그 언론사 '야구타임즈' 창간

국내 최초로 블로거들이 만든 ‘블로그 언론사’가 창간됐다. 블로그 네트워크 미디어기업인 태터앤미디어는 29일 야구전문 블로그 언론사인 야구타임즈(www.yagootimes.com)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야구타임즈는 지난 14일 서울시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됐다. 국내에서 블로거들이 다음 등 포털에서 뉴스를 생산해내기도 했지만 블로그 전문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야구타임즈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집툴과 세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한 뒤 내달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폐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도소 내에 복싱부를 운영해 왔던 천안소년교도소 총의대 복싱부가 폐지됐다. 천안소년교도소는 29일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작년말 총의대 복싱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1984년 천안교도소 전신인 인천소년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의대 복싱부는 이로써 24년 만에 해체됐다. 법무부는 재소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복싱보다는 직업 훈련이나 기술 습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복싱부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30일(금)
▲PGA FBR 오픈 1R (06:00·SBS골프·SBS스포츠)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KB국민은행(16:50·SBS스포츠)
▲호주 오픈 테니스 남자준결승 2 (17:30·MBC ESPN)
▲V리그 <GS칼텍스>·KT&G(16:40), <신협상무>·LIG손보(18:40·KBS N SPOR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NY' featuring a house with a swimming pool and garden. Contact: 062-574-0101, 062-672-0483.

Advertisement for '중고자동차 전차종' (Used cars of all types) with a focus on '매입·판매' (Purchase/Sale). Contact: (주)니콜레콤, 02-483-7586.

Advertisement for '뉴맨 님성 의원' (Newman Nimsung Clinic) with a focus on '안과' (Ophthalmology). Contact: 02-483-7586.

Advertisement for '화준의 '꿈' 파워마카' (Hwajun's 'Dream' Power Maca)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product information.